

# ‘서울-평양 청소년스포츠 교류’ 표류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난 6월 선거과정에서 ‘서울·평양 청소년 정기 스포츠 교류’를 추진하겠다고 공약을 내걸었다.

하지만 3차 남북정상회담으로 한반도 해빙무드가 무르익은 현 상황에서도 조 교육감의 이 공약이 현실화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0일 뉴시스에 서울시교육청 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스포츠 교류 선거 공약

교육청, 관련 부서들 서로 책임 떠넘기기 급급

전문가 “평화-스포츠 잘 어울려, 지금이 적기”

련 부서에 진행 상황을 점검한 결과, 이를 추진할 부서가 정해지지



도움이 필요하면 ‘사람사이 우체통’을 찾으세요

20일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 일대에서 ‘서대문구 북아현동 이웃살피미’ 관계자들이 주민들이 어려운 이웃을 돕는 주민 센터에 알리거나 스스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사이 우체통’을 설치하고 있다. 이들은 취약지역에 ‘주변 어려운 이웃을 알려달라’는 내용의 안내 포스터를 부착하고 어느 이웃에게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써넣을 수 있는 엽서를 비치해 고독사를 예방할 계획이다.

18~20일 평양에서 열린 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오는 2032년 하계올림픽 공동 개최에 합의한 것 등을 감안하면 조 교육감이 공약을 현실화 시키기에 좋은 시기인 것은 사실이다. 단국대 국제스포츠학과 강신욱 교수는 “청소년의 스포츠 교류는 성인보다 미래지향적이고 훨씬 의미 있는 바가 클 것”이라며 “북한과 동질성을 회복하고 이질감을 줄일 수 있는 기회를 빨리 제공하는 건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시기적으로도 서둘러서 손해보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않아 관련 부서들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시교육청 체육건강과 한 관계자는 이날 뉴시스와 전화통화에서 “스포츠가 포함돼있지만 남북관련된 교류라서 현재 그 부분에 대한 업무는 통일교육을 담당하는 민주시민교육과에서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작 민주시민교육과 측은 “처음에 공약이 나와서 업무분장을 하기를 스포츠 교류는 그쪽(체육건강과)으로 보내는 거라고 해서 체육건강과로 갔는데 거기서 어떻게 정리됐는지는 모르겠다”며 “스포츠나 이런 건 따로 잡아놓은 건 없다”고 설명했다.

조 교육감은 선거과정에서 평화공존을 위한 남북교류 프로그램 운영의 일환으로 서울·평양 청소년 정기 스포츠 교류를 추진하겠다고 했었다.

18~20일 평양에서 열린 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오는 2032년 하계올림픽 공동 개최에 합의한 것 등을 감안하면 조 교육감이 공약을 현실화 시키기에 좋은 시기인 것은 사실이다.

단국대 국제스포츠학과 강신욱 교수는 “청소년의 스포츠 교류는 성인보다 미래지향적이고 훨씬 의미 있는 바가 클 것”이라며 “북한과 동질성을 회복하고 이질감을 줄일 수 있는 기회를 빨리 제공하는 건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시기적으로도 서둘러서 손해보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가 추석연휴에 고향에 가지 않는 시민들과 역(逆)귀성객들을 위해 다양한 체험·공연·전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 추석연휴 ‘체험·공연·전시’ 즐기자

서울시, 21일부터 30일까지 도심 곳곳 특별행사 진행

서울시가 이번 추석 연휴에 고향에 가지 않는 시민들과 역(逆)귀성객들을 위해 다양한 체험·공연·전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먼저 서울역사박물관에서는 25일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한가위 한마당’이 열린다. 박물관 광장에서 가족의 행복을 기원하는 ‘황해도 평산 소놀이’ ‘도전 가족 골든벨’ ‘보름달 저글링 공연’ 등이 연이어 진행된다.

로비에서는 탈북 예술인으로 구성된 ‘평양예술단’의 남북평화를 기원하는 북한 민속공연을 펼쳐진다. 한성백제박물관에서는 같은 날 추석 특별행사인 한가위 박물관 근잔치가 열린다. 체험마당, 놀이마당, 공연마당으로 구성된 이번 행사에서는 백제를 대표하는 유물 문양을 탁본과 목판 인쇄를 통해 체험할 수 있다.

서울문화재단에서는 추석 당일인 24일 명절 특별프로그램 ‘추석놀이’를 개최한다. 한옥마당에서 우리떡 연구가와 함께 떡메치기를 체험하고, 단청모양 컵받침을 만들어볼 수 있다.

서울시청에서도 시민들을 위해 다양한 추석맞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서울시청 지하층에 위치한 ‘시민청’에서는 ‘시민청 추석 놀이마당’이 펼쳐진다. 22일과 25일부터 28일까지 ‘활력콘서트’와 ‘웃음이, 투호던지기, 팽이돌리기’ 등 다양한 민속놀이 체험 행사가 진행된다.

시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문화 예술 프로그램의 일정 및 내용은 서울 문화 화 포털 (<http://culture.seoul.gov>)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각 행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각 해당기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120 다산콜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 서울시, ‘한강야경투어’ 인기프로그램 자리매김

서울시는 한강에서 가장 아름다운 야경 명소를 전문 해설사와 함께 관광하는 ‘한강야경투어’에 대한 참가자의 만족도가 92%에 달한다고 20일 밝혔다.

올해 처음 선보인 ‘한강야경투어’는 공원 일대의 야경 명소를 관광하면서 전문 해설사들로부터 그 장소에 얽힌 다양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참가 신청을 위한 사전 접수가 첫 날 마감될 정도로 시민들의 관심이 높다. 회차 당 정원은 총 40명이며 현재까지 총 9회 운

영태 총 317명의 시민이 참가했다.

참가자 대상으로 ‘한강야경투어’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만족도가 92%에 달하며 그 중 51%는 매우 우수하다고 답변했다. 특히 구성 중 가장 만족스러웠던 부분으로 74%가 ‘전문 해설사의 한강 이야기 해설’을, 21%가 ‘다양한 연계 이벤트’를 꼽았다.

오는 10월27일까지 6회 남은 ‘한강야경투어’는 무료로 참가 가능하며 서울시 공공서비스예약 (<http://jeyak.seoul.go.kr>)을 통해 회차 4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뉴시스

## 추석연휴 서울역 도심공항터미널 8600명 이용 예상

올 추석 연휴 서울역 도심공항터미널을 통해 해외로 출국하는 여객이 8600명이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공항철도가 운영하는 서울역 도심공항터미널은 인천공항에서 실시

부터 28일까지 6일간 서울역 도심공항터미널을 이용하는 여객은 총 8630명으로 예상된다. 터미널이 가장 붐비는 날은 22일로 나타났다. 날짜별로는 ▲21일 1795명 ▲22

에서 인천공항 1·2터미널 역까지 운행하는 직통열차를 이용하는 여객을 대상으로 출국수속을 진행하고 있다.

공항철도 직통열차 이용객은 이곳에서 인천공항과 같이 항공기의 좌석 배정과 수하물 위탁 등의 출국 심사를 진행하고 수속이 끝나면 인천공항 1·2터미널로 가는 직통열차에 탑승하면 된다. 인천공항에 도착하면 별도의 수속절차 없이 바로 전용 출구를 통해 면세구역으로 진입하면 된다.

일 2404명 ▲23일 1686명 ▲24일 1615명 ▲25일 584명 ▲26일 546명이 이용할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중 외국인의 비율은 60%다. 서울역 도심공항터미널은 서울역

21~26일 8630명 이용할 듯...22일 가장 붐벼

대한항공 등 국내 5개 항공사 출국수속 가능

공항철도 24~25일 일반열차 막차시간 연장

하는 출국수속을 이곳에서 진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년 이용객 수가 늘고 있다.

20일 공항철도에 따르면 본격적인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오는 21일

지역광고·마케팅·정원직필

**湖南新聞**

전화 062)224-5800

팩스 062)222-5548

완도군 e-shop

완도군 공식 농·수산물 쇼핑몰

**완도군 특산품관**

WANDO COUNTY

전국제일의 청정바다에서 생산된 전복, 김, 미역, 멸치, 다시마 등 자연 그대로의 맛과 신선함!